

정제마진 7개월만에 1달러대로... 정유업계 실적반등 기회?

상반기 정유4사 적자 5조원 달해 정제마진 반등 배경에 '유가하락' 손익분기점 넘지못해 '적자구조' "1분기 손실 2·3분기로 이어질 것"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가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정유업계는 본업인 정유사업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됐을 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석유 제품 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 4사는 올 상반기에 대폭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기준 각사별 영업손실은 ▲SK이노베이션 2조 2149억원 ▲에스오일 1조 1716억원



GS칼텍스 여수 공장 전경.

▲GS칼텍스 1조 1651억원 ▲현대오일뱅크 5500억원 등이다. 정유 4사의 상반기 적자만 모두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여파로 인해 정유사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도 연이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주간 기준 올해 들어 2월 둘째 주를 제외하고, 정유사가 통상 흑

자를 내는 BEP(손익분기점)인 배럴당 4~5달러를 도달하지 못했다. 2월 둘째 주 정제마진은 4.0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3월 셋째 주부터 9월 넷째 주까지는 1달러 미만을 지속했다. 그만큼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적자를 봤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주 기준 정제마진이 1.5

달러로 상승하면서 약 29주 만에 정유업계는 '1달러'의 벽을 넘게 됐다. 정제마진이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제 유가의 하락이 꼽힌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 40.68달러를 기록해, 전주 41.47달러 대비 0.79달러 하락했다. 또, 7일 기준 10월 첫째 주 두바이유도 39.91달러로 전주 대비 다시 0.77달러가량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확진과 리비아의 증산 가능성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직 이 같은 정제마진의 반등은 정유업계에 수치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제마진이 올랐다고 해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해, 여전히 정유사가 적자 구조에 놓인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제마진이 이번 반등을 계기로 향후 상

승 곡선을 나타낼지 여부도 알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제마진 상승 원인에 대해 "제품 가격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국제유가가 빠져서 그런 것 같다"면서 "하지만 사실 정제마진이 지금 수익을 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정제마진이 향후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아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이) 반등하는 추세라고 보기 힘들다. 장기간 조금 올라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반등이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 지금 정유사들이 정유사업 쪽으로는 거의 최악이라고 보면 된다"며 "1분기에 재고 관련 손실 때문에 워낙 적자가 컸다. 그러나 2분기부터도 정제마진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도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외환보유액 4206억달러 '사상최대' 경신

한은, 지난달 말 15.9억달러 증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05억5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5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과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790억 8000만 달러(90.1%) ▲예치금 291억 5000만 달러(6.9%) ▲금 47억9000만 달러(1.1%) ▲IMF포지션 43억4000만 달러(1.0%) ▲SDR 31억8000만 달러(0.8%)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



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에 중징계 통보

금감원, 신한금융·KB증권 등 3곳 29일 제재심의위서 징계수위 결정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3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의 CEO에게 라임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제재 대상 기간의 임원 또는 CEO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

하되는 문책 경고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짓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사 임원과 CEO 징계는 제재심 결정이 내려도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모두 민감해 하는 이유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현재 임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판매사들이 라임 관련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고 적극 배상에 나섰지만 CEO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이미 지난 8월 초 내부통제마련 미비 등을 지적한 감사의견서를 통보받았고, DLF 사태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재심은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합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해외주식 공모주펀드까지 관심 확산

>> 1면 '공모펀드 흥행에...'서 계속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의 크기가 줄었고, 이런 상황에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공모주펀드 투자가 활발해진 것이다.

앞으로도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LG에너지솔루션(가칭) 등 대어급 IPO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공모주펀드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 에셋원자산운용은 올해만 2개의 공모주 펀드를 내놨다.

최근에는 해외주식 공모주펀드로 관심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중국 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황반(과학혁신판) 등 중국 공모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중국공모주펀드'를 내놨는데 판매 열흘 만에 목표 금액 500억원을 달성하면서 2호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커황반에서는 공모물량의 60~70%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고, 기업공개(IPO)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또 상장지수 5일간 상·하한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친환경, 뉴딜에 투자하는 펀드도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클린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도 친환경 기업을 담은 뉴딜펀드에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산업을 배제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등 클린에너지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주요국 신용등급 강등... 韓 'AA-' 유지

피치 "높은 부채수준 위험요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9월 컨퍼런스콜 협의의 반영한 결과다.

피치의 AA- 등급은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으로,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의 나라가 AA- 그룹에 속한다.

최고등급인 AAA는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에는 핀란드 등 3개국, 그다음인 AA등급은 프랑스 등 5개국이 랭크해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

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내려 발표하고 있다.

무디스(Moody's),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한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107개국, 211건에 달한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갔고, 미국과 일본은 등급 전망이 최근 하향조정됐다.

기재부는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 유지는 절대적으로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현재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때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피치는 또 코로나19확산이 경제성장률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한국이 효과적인 코로나19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1%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이 속한 AA등급 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인 -7.1%보다 우수한 수준이다. 다만, 피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고통화로 지출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답보 상태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악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한용수 기자 hys@